



F1 영암 코리아 그랑프리 관전법

최고시속 360km...55바퀴...0.001초 승부

12일 연습·13일 예선·14일 결승 알론소·페텔 4점차...우승 경쟁

12일부터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2010년 국내에서 처음 열린 F1 그랑프리는 어느 정도 국내 팬들과 친숙해졌지만 아직은 ‘마니아 스포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달려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가 이긴다는 매우 간단한 기본 원칙에 따라 열리는 시합이 또 F1이기도 하다.

F1 경기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관전법을 정리했다.

◇사흘간 열리는 F1 대회 = F1 그랑프리는 공식 일정의 사흘이다. 금요일(12일) 연습, 토요일(13일) 예선, 일요일(14일) 결선이 기본 골격이다.

일반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연습 주행을 통해서선 머신의 상태와 타이어 마모 정도, 연료 소모 추이 등을 점검한다. 연습 주행 결과는 레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토요일 오후에 펼쳐지는 예선은 본 레이스의 출발 순서를 정하는 시간이다.

예선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데 한 바퀴를 돈 기록이 빠를수록 높은 순위로 오른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바퀴를 도는지는 팀과 선수의 자유다.

1차 예선에서 7명이 탈락하고 2차 예선에서 또 7명을 추려낸다.

마지막 3차 예선에서 남은 10명의 본 레이스 출발 순서가 정해진다. 1, 2차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일요일 결선 레이스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출발하는 자리가 뒤쪽으로 배정돼 그만큼 본 레이스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1차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보다 기록이 107% 이상 느리면 그 선수는 결선 레이스 출전이 금지된다. 이는 속도가 느린 선수가 결선에 나와 다른 선수들의 레이스를 방해할 것을 우려해 만든 제도다.

최종일 결선 레이스는 예선과는 달리 정해진 바퀴 수를 가장 먼저 완주한 드라이버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즌 종합 우승 결정 방식 = 올해 F1 그랑프리는 모



두 20개 대회가 열린다. 대회마다 1위 선수에 25점, 2위에 18점, 3위에 15점 하는 식으로 10위에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를 더해 드라이버 부문 우승자를 가리고 또 팀당 2명씩 선수의 득점을 합산해 컨스트럭터(팀) 부문 순위를 정한다.

2011년에는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독주를 거듭한 끝에 10월 초 일본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확정했고 2010년에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페텔이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다.

12일부터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와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의 우승 경쟁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알론소는 드라이버 부문 랭킹 포인트 194점으로 아슬아슬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젊은 F1 황제’ 페텔이 190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타이어 교체 승부에 변수 = F1 중계를 보고 있으면 머신이 달리다가 피트에 들어와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다른 정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피트 스톱(pit stop)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트 스톱은 각 팀의 전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번 한국 대회에는 부드럽지만 마모도가 큰 소프트와 슈퍼소프트 타이어를 쓰게 돼 있어 그만큼 피트 스톱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레이스에서 2~3회 정도 피트 스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레이스

타이어 교체 ‘피트 스톱’ 4~5초 1km 넘는 긴 직선 주로가 승부처

막판에는 피트 스톱을 한 번 더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레이스를 강행할 것이냐를 놓고 각 팀의 전략 싸움이 불꽃을 튀기기도 한다.

타이어 4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5 초로 여기서 1초라도 아껴야 상대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영암대회의 특징 = 대회가 열리는 KIC는 세계적인 서킷 설계전문가 헤르만 틸게가 디자인한 경기장이다. 한 바퀴가 5.615km로 꽤 있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야 한다. 올해 20차례 대회 가운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5군대뿐이다.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 최고 랩타임은 지난해 페텔이 기록한 1분39초065다. 총 55바퀴를 돌아 308.630km를 달려야 하는 한국 대회는 특히 섹터 1의 턴2와 턴3 사이에 1km가 넘는 긴 직선 주로가 있어 드라이버들이 마음껏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주목받는다.

엔진 배기량은 2400cc, 엔진 최대 회전수는 1만8000rpm에 이른다.

F1 머신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를 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 시속 300km로 달리다가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5초다. 최고 시속은 360km까지 낼 수 있다.

◇규정의 변화 =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규정도 올해 대회의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머신의 앞쪽 부분인 노즈의 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지만 레이스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변화로는 EBD(Exhaust Blown Diffuser) 기술 금지와 윈 무브 규정 강화를 들 수 있다.

EBD 기술은 배기가스를 이용해 다운포스를 향상시키는 장치로 지난 시즌까지 상위권 팀들이 이 기술력에 강점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를 금지하면서 중하위권 팀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또 주행 중 뒤따르는 머신의 추월을 막는 블로킹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윈 무브 규정을 강화해 추월을 시도하는 쪽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블로킹을 하는 바람에 추월이 자주 나오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종범 코끼리 품으로

한화 이글스 코치 합류 스승과 한솔밤

김응용 감독 “어느 보직이든 잘 할 것”

5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은퇴한 ‘바람의 아들’ 이종범(42)이 스승 김응용(71) 한화 이글스 감독의 품에 안긴다.

올해 마무리 훈련부터 2년간 한화를 지휘하는 김 감독은 9일 “이종범을 만나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화 구단으로부터 코치진 조각에 관한 전권을 받은 김 감독이 손발을 맞출 첫 인사로 ‘예제자’ 이종범을 택하면서 스승과 제자는 1997년 이후 15년 만에 새동지에서 한술밥을 먹게 됐다.

1993년 KIA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종범은 일본에 진출하기 전인 1997년까지 당시 사령탑인 김 감독과 5년간 사제의 정을 쌓았다.

일본에서 돌아와 2001년 KIA에 복귀한 이종범은 지난해까지 타이거즈에서만 16년을 뛰었고 올해 전력의 통보를 받고 즉각 은퇴를 선언했다.

김 감독은 “우리 둘 사이에 합의가 끝난 이상 구단과의 연봉 계약만 남았다”고 덧붙혔다.

그는 “종범이가 은퇴 후 할 일이 많은 데도 내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며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종범의 보직에 대해 김 감독은 “종범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나”고 반문한 뒤 “달리기도 잘하고, 수비·타격 등 못하는 게 없지 않느냐”며 어느 보직을 맡겨도 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범을 수석코치로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감독은 “수석코치란 제도는 우리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 아니냐”면서 “여러 코치 중에서 한 명을 수석코치로 임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감독은 각 구단의 코치 계약이 끝나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코칭스태프를 꾸릴 계획이다.

한편 김 감독은 해태 사령탑 시절 제자인 선동열(현 KIA 감독)에 이어 이종범도 코치로 지근거리에서 두고 두 번째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1982년 말부터 2000년까지 해태를 지휘하며 선동열·이종범과 함께 한국시리즈에서 9차례나 우승을 일군 김 감독은 두 선수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 진출한 뒤 2000년 가을 삼성 사령탑으로 옮겼다.

2004년 지도자 데뷔를 준비하던 선동열 감독을 삼성 수석코치로 받아들인 김 감독은 2005년 감독 자리를 선 감독에게 넘겨주고 야구인 최초로 삼성 라이온즈 최고경영



한화 이글스 코치로 합류한 이종범

자(CEO)로 올라섰다.

당시 김 감독은 선 수석코치에게 투수 운용에 대한 전권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김 감독으로부터 바통을 물려받은 선 감독은 2005~2006년 삼성을 2년 연속 우승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선 감독과 마찬가지로 은퇴 후 지도자로 데뷔하는 이종범은 8년 만에 현역에 복귀하는 김 감독과 한화 선수들 사이의 가교를 맡아 팀을 재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가족의 힘’ 달구벌 달군다

전국체전 쌍둥이·형제·부자 선수 많아 화제

내일 대구서 개막

11일부터 달구벌 대구를 뜨겁게 달굴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17개 시·도에 선수와 임원을 합쳐 2만4000여명이 참가한다.

그렇다 보니 쌍둥이 형제·자매나 부자간 등 이색 참가자들이 적지 않다.

광주에는 특히 쌍둥이 출전 선수가 많다. 육상의 홍다미·홍다예(이상 광주체고), 소프트볼의 설가은·설다은(이상 세종고)은 쌍둥이 자매다. 핸드볼의 남궁진·남궁준(이상 조대부고) 형제도 쌍둥이다.

전북의 역도 선수인 박무성·박무성(이상 순창고)도 쌍둥이 형제로 각각 85kg급과 69kg급에 출전한다.

전남 대표로 공기권총 개인전 및 단체전에 나설 고은·고은석(이상 전남체고)

은 쌍둥이 남매다.

쌍둥이는 아니지만 함께 달구벌을 누빌 형제·자매도 있다.

여차 핸드볼의 간판으로 무안출신인 김은아·김선화(이상 인천체육회) 자매는 인천 대표로 나선다. 언니 김은아는 올해 런던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고, 동생 김선화는 올해 인천체육회의 SK핸드볼코리아리그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광주 대표인 우슈의 장동석·장용호 부자는 지도자와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중 최고령은 대전 대표로 사격에 출전하는 송석범(69)씨다.

1943년생인 송 씨는 충북 사이를 선수인 이번 대회 최연소 쏘아영(15·음성고)보다 54세나 많다.

/김일형기자 kih8@kwangju.co.kr

대당 100억 ‘귀하신 몸’... F1 머신 영암 수송작전 마무리

레드블레이징·맥라렌·페라리

12개 F1 레이싱 팀 모두 도착

대당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F1 머신의 수송작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레드블레이징, 맥라렌, 페라리 등 12개 F1 레이싱 팀은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 모두 도착해 한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F1 조직위원회가 9일 밝혔다. 각 팀 전력의 핵심인 머신은 고가의 장비인 만큼 운송에도 ‘특별대우’를 받았다.

7일 일본 대회를 마친 각 레이싱 팀은 F1 머신을 비행기에 싣기 위해 프린팅, 리어wing을 분리하고 엔진을 차체에서 들어냈다.

‘빠대’만 남은 차체는 항공 운송용 틀에 단단히 고정돼 ‘특수물류’ 자격으로 화물 전세기(보잉 747-400F) 6대에 나눠 실렸다.

차체와 함께 교체용 타이어나 엔진 등 다른 장비들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8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머신의 차체, 엔진 등 장비는 25톤 트레일러와 10톤 원바디 화물차량을 타고 호위 차량을 앞세워 영암까지 이동해 수송 작전을 마무리했다.

한편 F1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스탠드와 팀 빌딩, 미디어센터 등 경기장 곳곳에 대해 방역활동과 시설 안전점검을 펼쳐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